



정부는 한전 송·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

<보도 주요내용>

11.28.(화) 아시아경제 「“전기료 지옥 펼쳐질 것” 한전 익명 직원의 외침 파장」, 헤럴드경제 「“한전 민영화? 한달 전기료 수십만원, 지옥 펼쳐질 것”... 경고글」 등에서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처럼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, 이러한 조치가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한전은 현행법상 유일한 송·배전 독점 사업자로, 정부는 신규 송·배전 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고, 한전 송·배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담당 부서	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혜	(044-203-3930)
		담당자	서기관	장영빈	(044-203-3905)